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금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제사장의 정의

성경: 출 19:6, 뱀전 2:5, 9, 계 1:6, 5:10

I.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 출 19:6, 롬 14:7-8, 고후 5:15.

- A. 제사장들은 가장 정상적이고 합당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한 무리의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어,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이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 뱀전 2:5, 9, 계 1:6.
- B. 정상적이고 합당한 사람은 제사장인 사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만약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비정상적이다 — 계 5:10.

II. 제사장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며 하나님으로 침투된 사람,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흘러나오시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 뱀전 2:5, 9.

- A. 비록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적셔지며 침투되는 것이다 — 롬 1:9, 8:11.
- B.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불러 단지 그분을 위해 일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분께서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실 때까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서 넘쳐흐르시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어 드리는 것이다 — 엡 3:16-21.
- C. 우리의 온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적셔지고 침투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 살전 5:23.
 - 1.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일 것이고, 외적으로 능력이신 그분으로 옷 입혀질 뿐 아니라, 내적으로 모든 것이신 그분 자신으로 침투될 것이다 — 눅 24:49, 엡 5:18.
 - 2.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적셔지고 침투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분은 우리에게서 흘러 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될 것이다 — 요 7:38, 엡 2:21-22.
- D.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 그보다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열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림으로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며 주님과 하나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 E.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소유가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늘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다 — 엡 3:16-21, 고전 3:9상, 15:58, 고후 5:20, 6:1.

III.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이다 — 고전 6:17.

- A. 제사장이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이러한 접촉은 제사장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갖는 접촉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 히 10:19.
- B. 제사장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단지 객관적으로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접촉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한다 — 요 15:4-5.

IV.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 요 14:20.

- A.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 엡 3:16-21, 4:4-6, 16.
 - 1.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신성의 요소들과 인성의 요소들이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인 한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이 연결 안에서 그 요소들은 구별된 채로 남는다 — 눅 1:35과 각주 2.
 - 2.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며,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달려 있다 — 엡 1:5, 9, 3:11.
 - 3.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곧 하나님-사람이 되는 것이다 — 딤후 3:17.
 - a.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셔서 우리와 한 실체가 되신다 — 고전 6:17.
 - b.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는 그런 정도까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 — 요 15:4-5, 갈 2:20, 빌 1:19-21상.
- B.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연합된 영, 곧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신성한 영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고전 6:17, 롬 8:4.
 - 1.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그 영이시며, 그 영은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 되셨다 — 요 14:9-10, 16-18, 고전 15:45하, 6:17.
 - 2.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연합된 영, 곧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신성한 영이다 — 롬 8:4.
 - a. 이 두 영의 연결이 성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다.
 - b.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거나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연합된 영과 관련된다 — 엡 3:9, 5, 1:17, 2:22, 4:23, 5:18, 6:18.
 - 3. 연합된 영은 주님의 영이자 우리의 영이다 — 고후 3:17, 고전 6:17.
 - 4. 연합된 영은 하나님과 한 영인 영이며,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다. — 요일 5:11, 벡후 1:4.
 - a.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사람의 생활, 곧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갈 2:20, 빌 1:19-21상.
 - b.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두 영, 곧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생활이다 — 고전 6:17.
 - 5.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존재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기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적시시도록 하는 것이다 — 엡 2:22, 3:16-21.
 - 6. 제사장들로서 살고 섬기려면, 우리는 오늘날 주 예수님께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영에 내주하시는 그 영이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셨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 고후 3:17, 고전 15:45하, 6:17.

V. 제사장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 롬 7:6.

- A. 우리의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새롭고,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새롭다 — 고후 5:17.
- B.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움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VI. 제사장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 행 13:1-4상.

- A.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 행 13:2.
 - 1.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일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 시작되었다.
 - 2.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일은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제사장의 봉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약의 일을 위한 유일한 원칙이다.
- B. 성령의 일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때에만 계시될 수 있다 — 행 13:2.
 - 1.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 2. 오직 주님을 섬길 때에만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의 의도와 제사장 직분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는 행정이 있으며, 이 행정 안에는 그분의 신성한 경륜이 있다. ‘경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가정의 식구들에게 가정용품을 나누어 주고 분배하기 위한 계획, 행정, 안배를 함축하는 ‘가정의 법’을 의미한다. 이 단어의 어근은 요한복음 10장 9절의 ‘풀밭’의 어근과 동일하며, 풀을 양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가정 경영, 가족 행정(엡 1:10, 3:9, 딤후 1:4)인데, 이것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집인 교회(딤후 3:15), 곧 그리스도의 몸을 언도록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성한 가정 행정 안에는 중요한 세 사역이 있다. 그것은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신언자 직분이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으뜸이자 주된 사역이다.

신약에는 제사장과 관련하여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서 7장 12절에 있는 단어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말하고, 두 번째 단어는 히브리서 7장 5절에 있는 단어처럼 제사장의 봉사를 말하며, 세 번째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있는 단어처럼 제사장들의 모임, 제사장 체계, 제사장 무리를 말한다. 사람의 타고난 관념에 의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직업적인 사람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옳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관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 즉 영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갈망과 영원 미래를 위한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 사람들이 목적이 있고 항상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듯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성취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신 목적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만세 전에, 곧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인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 마음의 갈망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계시한다(엡 1:9). 하나님은 그분의 큰 기쁨에 따라 그분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의도를 세우셨으며, 또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셨다(엡 3:11).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한 무리의 사람들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이 그분의 표현이 되도록 결정하셨다(엡 1:5). 이러한 신성한 결정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침투되어, 심지어 하나님을 흘러 나가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 있는 표현이 되도록 운명이 정해졌다(창 1:26, 2:8-10, 요 7:37-39, 엡 3:19, 1:22-23).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침투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밖으로 흘러 보내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의미이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심지어 완전히 점유하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축되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단체적인 한 표현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건축된 단체적인 실체가 제사장 체계이다.

제사장 체계와 하나님의 흐름

기독교 안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반드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관념이 있다. 이 관념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위해 일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타고난 종교적인 관념이며, 하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거나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없으시다. 그보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어 드림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심지어 우리에게서 넘쳐흐르시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적셔시고, 우리 안에 침투되시고,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소유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차지하시고 점유하시고 적셔시고 침투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 외적으로 능력이신 그분을 입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그분으로 침투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사람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실 것이다. 더 나아가 생명의 흐름인 이러한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건축될 것이다.

홍수에 휩쓸려 가는 사람은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그들은 홍수의 한 흐름 안에서 떠내려간다. 우리가 모두 마른 땅에 있다면,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 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홍수는 우리를 휩쓸어 그 흐름 안에 두며, 우리는 모두 우리의 독립적임과 개인주의를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

는 그 홍수 속에서 모두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떠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홍수의 방향대로 가기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홍수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서로 하나가 될 것이고 이 한 흐름 안에서 함께 건축될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성 전체에 흘러가는 생수의 강을 보여 준다(계 22:1-2). 온 성이 한 흐름 안에 있다. 이것이 제사장 체계의 그림이다.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봉사

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우리는 그러한 관념을 잊어버려야 한다. 젊었을 때 나는 주님의 종은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의 종은 마땅히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나의 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없다. 그분의 유일한 의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어떤 것을 하거나 당신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채워지고 당신의 소유가 되며 심지어 당신께 완전히 점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분께 말씀드림으로써 그분의 부르스에 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할 수도 없고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주된 일과 행동이 제물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냄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적셔지고 침투되어 결국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주님으로 적셔지기 전에는 결코 합당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제사장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얻고자 계획하셨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으로 충만한 단체적인 한 사람을 갖기를 계획하셨다. 우리에게 이러한 빛이 있다면,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철저히 적셔지고 침투되고 점유된 사람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점유되고,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으로 적셔지고 침투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흐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요, 회복이요, 교회의 건축이다. 이것이 또한 봉사이며, 이것이 복음 전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과 봉사, 교회의 건축,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제사장 직분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의 갈망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열려서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냄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차지하시고 점유하시고 심지어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얻기를 계획하셨고 오늘날 얻기를 갈망하시는 사람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2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생활, 429-439쪽)*